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157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Christ Be Our Light (Eng. 별첨 악보)

제 1독서 | 민수 21,4-9

화답송 |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좌)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우)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좌)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우)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 2독서 | 필리피 2,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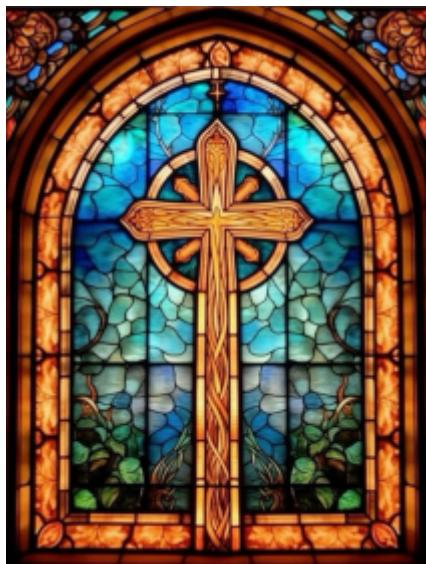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3,13-17



오늘의 복음

<제 1독서>

4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5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6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7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
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8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9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의 묵상 - Fr.김태훈 리푸조> 오늘 제1독서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정은 양식도 물도 부족하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해방의 여정을 후회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하였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불 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오늘 독서 전체의 틀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 뱀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불 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통회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느님께 뱀을 치워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고 하시며,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민수 21,8)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뱀이 없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지만, 하느님께서는 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따라 우리 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과,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사랑하시는 나를, 또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값을 치른, 구원된 나를 봅니다.

<제 2독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6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자신을 낯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Agnus Dei

(하느님의 어린양)

Missa de Angelis

성가대
Ag - nus De - i, Qui tol - lis pec-á-ta mun - di
아 - 뉴스 데 - 이, 꿰 톨 - 리스 빼- 까- 따 문 - 디

3 교우 성가대
mi-se - ré- re no - bis, Ag-nus De - i
미- 세 - 레- 레 노 - 비스, 아- 뉴스 데 - 이

5 교우
qui tol - lis pec-á-ta mun - di mi-se - ré-re no - bis.
꿰 톨 - 리스 빼- 까- 따 문 - 디 미- 세 - 레- 레 노 - 비스.

7 성가대
Ag - nus De - i, qui tol - lis pec-á-ta mun - di
아 - 뉴스 데 - 이, 꿰 톨 - 리스 빼- 까- 따 문 - 디

9 교우
Do - na no - bis pa - cem.
도 - 나 노 - 비스 파 - 청.

“하느님의 어린양(라틴어로 Agnus Dei)”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합니다. 이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된 완전한 희생양임을 드러냅니다.

<신학적 의미>

1) 완전한 희생 제물: 하느님의 어린양은 구약의 희생 제사 전통을 온전히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제의법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물들은 실제로 죄의 일시적 속죄 역할을 했으며, 그 희생은 반복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 어린양 등 희생 제물이 계속해서 바쳐졌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역사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속죄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속죄하셨습니다(히브리서 9장).

12~14절 참조). 이 희생은 반복될 필요 없이 완전하며, 미사의 성체성사 안에서 신비적으로 현대화되고 계속 적용됩니다.

2) 성체성사 안에서의 현대화: 미사 중 부르는 ‘하느님의 어린양’기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전례적으로 현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미사에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되며, 성체성사를 통해 집자가 희생이 신비로이 현대화 됩니다. 이 신비 안에서 신자들은 어린양의 희생에 참여하며 영적-신적 생명을 받습니다.

3) 구원과 승리: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에서는 어린양이 부활하여 승리하며 인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그분의 승리와 최종 구원계획을 통합하여 표현합니다.

4) 성찬례에서의 표현: “하느님의 어린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희생, 속죄, 성체성사)를 함축하는 중심적 신학 개념입니다. 구약 희생 제사의 완성과 실현이며, 인류 구원의 결정적 사건을 신앙고백하는 명칭입니다.

공지 사항

1. 추석 한가위 미사 및 행사 안내

- * 날짜: 10월 5일 (주일)
- * 일정:
 - 11:30 ~ 12:00 위령을 위한 연도 및 분향
 - 12:00 ~ 13:00 미사
 - 13:00 ~ 14:00 점심식사
 - 14:00 ~ 16:30 윷놀이 등 미니게임

<미사 후 행사 및 식사 나눔 안내 >

* 한가위 행사를 준비하며 성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경품을 준비하지만, 더욱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위하여 신자분들께 물품 도네이션을 겸손되어 청해보고자 합니다.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사목회위원 분들을 통하여 도네이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년과 같이 식사 나눔 때는, 사목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가정당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여정 ‘시즌 5’ 모임

- * 일시: 9월 17일(수), 저녁 7시 (Zoom 모임)
- * 다음 영상을 Youtube에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 다큐멘터리”

3. School Holiday 아이들(유아&청소년) 활동

- * 장소: Bounce Belconnen
- * 일시: 10월 11일 (토) - 9:30 ~ 14:00
- * 일정:
 - 09:20am : Bounce Belconnen 앞에서 모임 (2시간)
 - ~ 11:30am: 시설 이용
 - 11:45am: 성당 교육관으로 개별 이동 후 점심.
- 참가 방법: <https://forms.gle/8mAhUDVqT9Z7z9bk9>
- URL 접속 혹은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해주세요~



| 미사 참례자 수 |

9월 7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1명
9월 14일	유아·청소년: 26명	성인: 48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9월 14일)	마르코반
다음주 (9월 21일)	마태오반

| 봉헌금 & 교무금 | (9월 6일 ~ 9월 12일)

봉헌금	\$ 220	
교무금	\$ 490	
구민식	권묘순	서미숙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주정자		장호훈
		정은영

| 기도 지향 |

- * 임양녀 세실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